

거양해운 ...

제14기 정기 주주총회 개최

거양해운(대표 박정원)은 3월23일 여의도 본사 회의실에서 주주 및 임원이 참석한 가운데 제14기 정기 주주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주주총회에서는 매출액 2,635억원, 당기 순이익 202억원등의 전년도 재무제표 승인과, 이사선임,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등에 대해 의결하였다.



한편 이 자리에서 박정원 대표이사는 인사말을 통해 중국 효과를 비롯한 대외 여건의 호조도 영향이 있었지만 무엇보다도 철저한 수익력 위주의 영업과 원가절감을 위해 매진하는 등 내실 있는 경영을 펼친 결과라고 설명했다.

또한 전년도의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지속적인 흑자 기반 구축을 위해 수익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사업개발에 총력을 집중하고 회사 제반시스템의 개선 및 효율적인 조직체제의 구축 등 내부 시스템을 지속 개선해 나가고 있으며, 체질강한 기업으로 쉽게 성장하기위해 전임직원이 열과 성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박정원 대표이사는 올해는 보다 질적으로 업그레이드된 성과로 내실있는 경영 및 변함

없는 고객의 확고한 신뢰를 유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남성해운 ...

임원진 승진인사 단행

남성해운(사장 김영치)은 3월23일 주주총회를 열고 지난해 사업실적과 올해 사업계획을 승인하는 한편, 임원진에 대한 승진인사를 단행했다.

남성해운은 주주총회 결의에 따라 김종길 상무와 임태석 상무를 전무로, 박영진 이사와 장민재 이사를 상무로 각각 승진선임했다.

대안해운 ...

제37차 주주총회 개최

대한해운(사장 이진방)은 3월19일 오전 10시 본사 6층 강당에서 제37기 주주총회를 개최하고 5% 배당을 결정, 4년만에 배당을 실시했다.

대한해운은 지난해 매출 6,279억원, 영업이익 688억원, 경상이익 446억원, 당기순이익 313억원을 각각 달성했다.

매출액은 전년에 비해 30.2%, 영업이익은 111.7% 각각 성장했으나 경상이익은 42.3%, 55.6% 각각 감소했다.

이에 대해 대한해운은 2002년 외화환산이익 777억원 발생으로 인한 장부상 대규모 흑자를 보였으나 작년에는 실적을 바탕으로 한 실질적인 흑자라고 전했다.

이날 주총에서는 또 임기가 만료된 이진방 사장과 사외이사인 이동언 이사를 재선임했다.

대한해운 이진방 사장은 주주들의 대규모 배당

요구에 대해 “당기순익을 실현했으나 IMF 외환 위기 이후 열악해진 재무구조를 개선하고 80% 대의 부채비율을 건전화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 사장은 또 “올해 선령이 비교적 높은 선박을 교체하기 위해 현재 5-6척의 신규 선박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데 이를 위해 약 400억원 가량의 자금이 소요된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올 만기도래 사채 500억원을 상환할 방침임에 따라 당장의 이익을 배당하기 보다 회사 장기계획을 진행하는 데 이를 사용할 계획”이라며 “주주들이 이를 감안해 주길 바란다”고 덧붙혔다.

동남아해운

주주총회 개최

동남아해운(회장 양길용)은 3월26일 주주총회를 열고 지난해 4246억원의 매출을 달성했으며 31억원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했다고 보고했다.

동남아해운의 주주총회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매출액은 2002년의 3,667억원보다 많은 4,246억원을 기록했으나, 영업이익은 4억원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경상이익은 50억원이 발생했으며 당기순이익은 2002년(45억)보다 줄어든 31억원을 기록했다.

주주총회에서 주주들은 지난해 어려운 대내외적 경영환경에도 불구하고 전 임직원의 단합된 노력으로 노후선박을 교체하고, 적자항로를 철수하는 등 시장변화에 발 빠르게 대응한 결과 6년 연속 흑자경영을 시현했다고 평가했다.

이날 이승현 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용선료 폭등과 유가상승, 운임회복 계획의 지연이라는 악재

속에서도 14.4%의 매출신장률과 6년 연속 흑자 경영 시현이라는 결과를 달성하여 이를 바탕으로 내실있는 회사경영을 진행 중”이라고 밝히며 “Global 선사로 도약하기 위해, 노후선을 교체하고 파트너 선사와의 적극적인 선대 개편을 주도하여 고비용 구조를 탈피하는 한편, 적극적인 운임정상화 노력을 경주하는 가운데 신규시장 개척 및 해외 조직강화에 주력하여 수익성 중심의 경영을 이어가겠다”고 향후 경영계획을 피력했다.

한편 동남아해운(주)은 구랍 말레이시아 현지법인을 설립한데 이어 올해에도 일본 동경, 오사카 지점을 직영화하고 중국 심천, 인도 뭄바이 지점을 신설하는 등 해외 조직 체제 정비를 통하여 영업력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범양상선

제38기 주주총회 개최

범양상선(대표 장진원)은 3월25일 오전 10시 본사(대한화재빌딩) 20층 대강당에서 제 38기 주주총회를 개최하고 2003년 재무제표와 현금배당 2%를 의결하는 한편 신임 감사에 천병률씨를 선임했다.

이날 승인된 영업보고 내용과 손익계산서에 따르면 범양상선은 지난해 범양상선은 총 1조 9771



역원의 매출을 달성했으며 영업이익도 2002년 (245억)보다 3배이상 증가한 779억원을 기록했으며 431억원의 당기순이익을 시현했다.

한편 지난해 5만mt급 벌커선 2척과 2만mt급 케미컬 탱커선 1척을 도입했으며, 올해 2월중순에도 2만mt급 케미컬탱커선을 인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범양상선은 오는 2005년 6월과 9월 3만mt급 벌커선을 각각 인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세양선박

선대대형화로 매출 및 이익 극대화

세양선박(회장 임병석)은 올해 지속적인 자사선 도입과 선대 대형화를 통해 매출 및 이익을 극대화하고 인수회사와의 시너지 창출과 본격적인 중국시장을 공략한다는 경영목표 아래 올해 매출액을 2400억원으로 설정하고 영업이익도 230억원으로 책정했다.

임병석 회장은 3월19일 10시 30분 주주총회에 이어 열린 기업설명회(IR)를 통해 이처럼 밝히고, 4월에서 8월 사이 이미 계약을 체결한 케이프사이즈선박 2척(4월, 8월)과 파나마스선박 1척(7월)을 인도할 예정이며, 이후 케이프사이즈선박 1척과 VLCC 1척을 추가로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임회장은 올해 해운시황에 대해 “세계 경기가 본격적인 회복국면에 진입함에 따라 교역량이 증가하고 있고 중국의 수출입 해상물동량 증가 추세도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벌크선박 공급량이 제한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운임이 전선형에 걸쳐 놓은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에따라 세양은 △대형 벌크선 및 탱커 자사선

도입 등 선대개편에 따른 수익구조 개편을 비롯해 △부정기화물(원유)의 중국 등 운송물량 급증 지역 공략 △VLCC선 도입에 따른 액체화물 운송 사업 확대 △대형 벌크선 및 VLCC, LR, MR 용선업무 확대 △신규사업 통한 이익창출로 수익성을 극대화한다는 경영전략을 세우고 올해 도입예정인 3척의 선박과 하반기에 들여올 계획인 2척을 합해 총 66만 1000dwt의 자사선복을 도입할 계획이다.

또한 세양은 선대확충과 함께 운임급등락 등에 따른 위험을 분산시키는 전략으로 대형거래처와 장기거래운송계약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한편 임병석회장은 올해 신규추진사업으로 세모유람선과 (주)진도의 인수와 향후 사업추진 계획을 밝혔다.

세모유람선 사업은 선원선박 관리 등 기존사업과의 시너지 효과 창출하며 연관산업 범위내에서 사업다각화를 추진하는 한편 한강개발사업과 연계한 신규사업 개발과 부가가치 창출로 올해 영업이익률을 8.7% 높이고 매년 각각 13.3%로 끌어올려 06년에는 241억원의 매출을 올릴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임병석 회장은 이번 IR에서 주주는 물론 관련업계에서 가장 관심을 초점이 된 (주)진도 인수와 향후 경영계획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했다.

임회장은 컨테이너제조업 진출을 통해 컨테이너선사로 진출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게 됐다고 말하고 인수후 6개월내 핵심사업을 선정하고 1년 이내에 연계사업을 강화하는 한편 1년이 지난 이후에는 핵심사업에의 투자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임회장은 특히 (주)진도의 컨테이너제조사업에 대한 강한 자신감을 표명하면서 중국업체와의 차별화를 위해 특수컨테이너부문 사업을 강화할 생

각이라고 밝히고, 특수컨테이너의 경우 중국에서 생산된 제품이 운송료가 높아 미국지역으로 제대로 공급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에대한 충분한 경쟁력이 있다고 설명했다.

임회장은 진도를 인수한 이후 진도의 비영업용 무수익자산 매각을 통해 투자재원을 확보, 선박을 3-4척 추가로 도입할 계획도 밝혔다.

안진해운 ●●●

당기순익 2,952억원에 5년연속 배당

한진해운(사장 최원표)은 3월19일 10시 여의도 본사에서 개최한 주주총회에서 액면가 기준 15% 배당을 결정, 지난 99년부터 5년 연속 배당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최원표 사장을 비롯한 회사 경영진 및 주주 등 500여명이 참석한 이날 주총에서는 지난해 매출액 5조5,679억원, 경상이익 4,231억원, 당기 순이익 2,952억원에 대한 재무제표건 승인 및 지배구조 개선의 일환으로 이사진을 새로 4명을 추가해 현재의 7명에서 11명으로 늘렸다.

또 15%의 현금 배당을 실시키로 해 지난 99년, 2000년 10%, 2001년 7% 2002년 5%에 이어 5년 연속 배당을 실시하고 아울러 분기배당제도를 도입토록 정관 개정을 의결했다.



최원표 사장은 인사말에서 “2004년에는 6조원 대(약 52억달러)의 매출과 6,000억원(5.2억달러) 이상의 영업이익을 달성할 계획”이라며 “그러나 앞으로 다가올 불황에 대비 수익 극대화를 통한 기업가치 제고와 미래를 대비한 안정적인 수익구조 확립의 해로 정해 수익과 가치중심의 내실경영 정책을 지속 추진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최 사장은 이어 “주주가치 증대를 최우선으로 하는 경영을 지속적으로 실천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진해운은 올해 중국 코스코(COSCO), 일본 케이 라인(K-Line), 대만 양밍(Yang Ming), 독일의 세나토사(Senator)와의 “CKYHS” 전략적 제휴사간 협조를 강화해 항로 합리화를 지속 추진하고 서비스 경쟁력 증강과 함께 저 원가 전략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중국시장 영업을 더욱 강화해 나가고 미래에 대비한 안정적인 사업구조 구축을 위해 ‘신규 컨테이너선의 발주’, ‘환율 금리 등 중장기적 리스크 관리를 강화’ 및 ‘중장기적으로 수익원의 다양화 방안’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벌크 사업에서도 철저한 수익성 위주의 영업 및 환경 변화에 따른 대응력을 높혀 나가기로 하고 국제선박 보안 시스템(ISPS CODE) 기준에 의거 전 선박에 대한 인증을 상반기 중에 완료하여 선박과 화물의 안전에 대한 국제 신뢰도를 더욱 높여 나갈 예정이다.

현대상선 ●●●

작년 3013억 영업이익의 시현

현대그룹의 현정은(玄貞恩)회장이 현대상선의

신임 등기이사로 선임됐다.

현대상선은 3월23일 오전 9시 적선동 지하강당에서 2004년 정기주주총회를 열고, 회사추천으로 상정된 현정은 회장의 이사선임 건을 표결에 붙인 결과 총 투표주의 62.54% 찬성표를 얻어 통과시켰다.



현정은회장이 신임이사로 확정됨에 따라 주주 제안으로 이사후보에 추천된 정몽진(鄭夢進) KCC 회장의 이사선임은 안건으로 상정되지 못했다.

이로써 현대상선의 새로운 이사진은 사내이사로 기존의 노정익사장(대표이사), 이재현전무(컨테이너영업본부장), 최경호 상무보(회계담당 중역) 등 3명에 현정은 회장이 추가돼 4명으로 늘었다. 사외이사는 종전과 마찬가지로 송희연 인천대 국제통상대학장과 채이식 고려대 법대교수, 양태진 세종대 경영대학원장, 박양기 (주)BCS 부회장 등 4명이다.

이들 신임이사진은 빠른 시일 내에 이사회를 열어 대표이사 선임문제 등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정은 회장의 등기이사 선임 이전에 상정된 2003년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및 결손처리계

산서(안)의 승인과 관련 KCC측의 반대의견과 함께 요구된 표결 처리 결과 79.24%(반대 20.7%)의 압도적인 찬성표를 얻어 원안을 통과시켰다.

노정익 사장은 주총 인사말을 통해 “이번 회계감사에서 적정의견을 받음으로써 고대하던 관리종목을 탈피한 만큼, 이를 통해 회사의 투명성과 대내외 신인도를 제공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제2의 창업을 한다는 각오로 올해 최선을 다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현대상선은 주총이 잘 마무리됨에 따라 수년내 최고의 실적이 기대되는 1분기 실적발표 시점에 맞춰 국내외 기업설명회 등 IR을 적극적으로 전개해 나가는 등 대외신인도 제고와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수립, 추진해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현대상선은 지난해 3조 9788억원의 매출에 3013억원의 영업이익을 시현했다고 주주들에게 보고했다.

특히, 현대상선은 작년 매출액이 2002년 4조 6,289억원에 비해 줄었으나 자동차운송부문 매출 약 1조1000억원이 포함됐던 것을 감안하면 2003년에는 사실상 약 4,500억원정도 매출이 증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영업이익 측면에서는 2002년에 영업손실 343억원중 자동차운송부문을 제외할 경우 1,601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했으나 지난해에는 영업실적이 현저히 개선된 3,013억원의 영업이익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당기순이익은 211억원의 손실을 시현했다. 당기손실과 관련 현대상선측은 “실제 납부할 금액은 거의 없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기업회계 기준에 따라 계상된 법인세 비용 399억원에 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